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연구

김 향 미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목 차

- I. 서 론
- II. 문헌고찰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논 의
- VI.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정신의학은 역동정신의학을 토대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며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및 간호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원들의 태도, 특히 간호원은 환자와 접촉을 자주 갖게되며 정신과 병동의 전체적인 치료적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¹⁾ 정신과 간호원의 태도 여하에 따라 환자의 치료과정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²⁾.

많은 연구자들^{3),4),5)}은 재학시 갖게 되는 정신간호학 교육경험은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

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졸업 후의 정신과 경험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는지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과에 근무하는 간호원이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조사, 분석하여 정신간호학 교육의 평가 및 효과적인 간호업무 수행을 위한 치료적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2. 문제의 제시

위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태도는 어떠한가?
- 2)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근무

1) L.M. Meyer,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 mental patients of junio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and their University peers," Nur. Resear., May-June, 1973, Vol. 22, No. 3, p. 242.
 2) F.M. Canter and Shoemaker,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 attitudes and attitude toward mental health patienas," Nur. Resear., 1960, Vol. 9, No. 1, pp. 39~40.
 3) J.E. Walsh, "Instruction in psychiatric nursing, level of anxiety and direction of attitude change toward the mentally ill," Nur. Resear., Norember-december, 1971, Vol. 20, No. 6, pp. 522~529.
 4) J.M., Hicks, and F.E., spaner, "Attitude change and mental hospital experience" J.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52, Vol. 65, No. 2, pp. 112~126.
 5) Meyer, op. cit., pp. 242~245.

무 간호원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3. 연구의 가설

앞에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원의 태도는 정신과 근무 간호원이 타과 근무 간호원보다 긍정적일 것이다.

2)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태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일 것이다.

3)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태도는 4년제 과정을 졸업한 집단이 3년제 과정을 졸업한 집단보다 긍정적일 것이다.

4)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태도는 사립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집단이 국, 공립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집단보다 긍정적일 것이다.

5)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태도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긍정적일 것이다.

6)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태도는 정신과를 자의로 선택한 집단이 타의에 의한 집단보다 긍정적일 것이다.

7)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태도는 업무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일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1)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이란 정신과의 진료대상이 되는 모든 종류의 질환, 즉 경한 신경증에서부터 중한 정신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질환을 포함하며. 정신질환자란 위의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므로 정신과의 시

설을 이용하는 환자를 뜻한다.

2) 정신과 근무 간호원

간호원 면허소지자로서 현재 정신병원, 정신과 병동 및 정신과 외래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원을 뜻한다.

3) 타과 근무 간호원

간호원 면허소지자로서 현재 종합병원의 정신과를 제외한 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원을 뜻한다.

4)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 긍정적인 태도 : cohen과 struening이 제시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섯가지 태도요소 중 자비심, 정신건강관념, 인간관계원인 등 3개 요소에 대한 견해가 포함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로 간주된다.

○ 부정적인 태도 : 다섯가지 태도요소 중 권위 의식과 사회생활 제한성에 대한 견해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로 간주된다⁶⁾

5.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 소재 12개의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원의 태도 조사에 한정 되었으므로 전국적으로 일반화 할 수는 없다.

2) 도구 선정에 있어서 번역된 질문지를 사용 하였으며 대상자의 연령구성 비율에 있어 높은 연령층의 수가 적은 제한점이 있다.

II. 문헌고찰

1. 태도 및 의견

태도란 긍정적, 부정적인 태도로서 인간의 어떤 상징, 대상 혹은 세계관을 평가하는 개인의 속성을 말하며⁷⁾ 또한 습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영향하에서는 변화될 수 있으며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규범에 따라 형성된다⁸⁾.

6) J. cohen and E.L. struening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in the personnel of two large hospitals," J. Abnorm. soc. psychol., Vol. 64, 1962, pp.349~360.

7) 주명순, 정신질환에 대한간호학생의 태도 연구, 간호학회지, 제 4권, 제 3호, 1974, p.13에 인용된 Lambert, William W., and Lambert, Wallace E., Social psychology, 2nd. ed., Foundations of Modern psychology Seri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4.

8) Walsh, op. cit., p.523.

한편 의견은 태도와 만찬가지로 학습이 근원이 되며⁹⁾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과 의견이 같거나 또는 차이가 있는 것은 그 개인이 지니고 있는 어떤 견해 때문이다¹⁰⁾.

또한 의견은 태도의 언어적인 표현이지만 태도는 무언의 행동으로도 나타낼 수 있으며¹¹⁾ 태도와 의견의 근본적인 차이는 일반적으로 태도가 내재적인 반면에 의견은 외현적인 것이다¹²⁾.

2.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와 의견의 변화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와 의견의 최초의 변화는 정신간호학 교육을 통한 경험과 관계가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OMI척도(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Scale)를 사용하여 정신간호학 교육 경험후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Hicks와 Spaner¹³⁾, Walsh¹⁴⁾ 그리고 Swain¹⁵⁾은 정신간호학 교육 경험후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의견이 긍정적인 방

향으로 변화되었음을 발견 하였으며 Lewis와 Cleveland¹⁶⁾은 정신과 실습후 간호학생들의 태도가 권위의식, 정신건강관념과 인간관계 원인의 세 요소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발견하였고 Altrocchei¹⁷⁾, Toomey 및 others¹⁸⁾, Gelfand와 Ullman¹⁹⁾ Morris²⁰⁾ 그리고 Smith²¹⁾의 연구에서도 권위의식과 사회생활 제한성에서 낮게 나타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었다. Creech²²⁾도 정신간호학 교육 경험후 간호학생들의 태도는 권위의식과 사회생활 제한성은 낮았고 정신건강 관념과 대인관계 원인은 높게 나타나 네요소의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보고하였다.

또한 Meyer²³⁾는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학생과 비간호학생과의 비교조사에서 간호학생이 비간호학생보다 권위의식과 인간관계 원인의 두 요소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주²⁴⁾의 연구에서 한국 간호학생의 태도는 미국의 간호학생보다 대체로 부정적임을 나타내었으며 원²⁵⁾과 박²⁶⁾의 연구에서도

- 9) W.A. Scott, "Attitude change through the reward of verbal behavior," J. Abnorm. psychol., July, 1957, Vol. 55, p. 73.
- 10) A.M. Kahn, "Relationship between nurses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and experience," Nur. Resear., march-April, 1976, Vol. 25, No. 2, p. 136.
- 11) 주명순, op. cit., p. 13. 인용된 Lambert, op. cit.,
- 12) Kahn, op. cit., p. 136.
- 13) Hicks & spaner, op. cit., pp. 112~126.
- 14) Walsh, op. cit. pp. 522~529.
- 15) H.L. Swain,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Nur. Resear., 1973, Vol. 22, No. 1, pp. 59~64.
- 16) L. Lewis and S.E. Cleveland, "Nursing students' attitudinal change following a psychiatric affiliation," J. psychiatr. Nurs., May-June, 1966, Vol. 4, pp. 223~231.
- 17) J. Altrocchei and E. Carl, "Changes and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Mental Hygiene, 1961, Vol. 45, pp. 563~570.
- 18) L.C. Toomey and Others,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psychiatric treatment and hospitals," mental Hygiene, 1961, Vol. 45, pp. 589~602.
- 19) S. Gelfand and L.P. Ullman., "Attitude changes Associated with psychiatric affiliation," Nur. Resear., 1961, Vol. 10, No. 4, Fall. pp. 200~204.
- 20) K.D. Morris, "Behavior Change: A concomitant of attitude change in Nursing students," Nur. Resear., spring, 1964, Vol. 13, No. 2, pp. 132~138.
- 21) J.J. Smith, "psychiatric hospital experience and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J. consu. clin. psych., 1969, Vol. 33, No. 3, pp. 302~306.
- 22) S.K. Creech, "changes in attitudes about mental illness among nursing students following a psychiatric affiliation," Nur. Resear., 1977, Vol. 15, No. 6, pp. 9~14.
- 23) Meyer, op. cit., pp. 242~245.
- 24) 주명순, 전제서, pp. 13~31.
- 25) 원정숙, "정신과 간호학 임상교육을 통한 간호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변화 연구", 경희간호논문집, 1975, 제 1권, 제 1호, pp. 9~22.
- 26) 박예숙, "정신간호학 강의 및 실습이 간호학생들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 교육 경험 후 간호학생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는 외국에 비해 부정적 입을 나타내었다.

한편 박²⁷⁾의 비정신과 간호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학생시 정신간호실습 장소와 기간에 따라 한, 두요소에서만 유의한 차가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Murry²⁸⁾는 연령증가에 따라 권위의식과 사회생활제한성이 높아져 연령증가에 따르는 부정적인 태도를 발견하였고 Middleton²⁹⁾도 젊고 경험이 적은 치료요원들보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더 그릇된 편견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Perry 등³⁰⁾은 정신과 간호원들이 비정신과 간호원들보다 권위의식이 높으며 Kahn³¹⁾은 정신과 간호원은 간호학생과 내, 외과 간호원보다 권위의식과 사회생활 제한성은 높았고 정신건강 관념과 인간관계 원인은 낮았으므로 장기간 정신과 근무 경험은 간호원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이상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간호학생들은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가 정신간호학 교육 경험후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준 반면에 졸업한 간호원들은 정신과 근무 경험이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킨 것도 볼 수 있었다.

Ⅲ. 연구방법

1. 대 상

본 연구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서울시내에 있는 국·공립정신병원 3개소와 사립종합병원 9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정신

과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원 145명, 정신과를 제외한 타과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원 127명을 무선표집하여 모두 2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중 분실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것 9부, 문항을 모두 기입하지 않은것 30부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실제로 연구자료에 사용된대상자는 정신과 근무 간호원 122명, 타과 근무간호원 111명으로 총 233명이었다.

12개소의 병원은 모두 정신과 병동을 가지고 있으며 11개소가 간호학생들의 실습장소로 이용되고 7개소가 대학 부속병원이었으며 설문지 배부는 본 연구자가 각 병원마다 직접 방문하여 간호과장과 수간호원의 협조하에 실시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Cohen과 Struening이 개발한 OMI척도를 저자가 한국말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되도록 원문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옮기도록 노력하였고 정신과 전문의사, 임상심리학자, 정신간호학교수 등과 상의하여 결정된 것을 사용하였다.

OMI척도는 1959년 이후 많은 연구를 통해 개발되어 집단간의 비교를 위해 여러 대상에게 실시되어졌고 Cohen, struening의 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충분한 입증된 설문지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박³²⁾, 원³³⁾, 그리고 안³⁴⁾ 등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신뢰성,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본 연구자는 예비조사 없이 실시하였다.

OMI척도는 총 5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고 다섯가지 태도요소로 분류되었으며 각태도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권위의식(Authoritarianism)....요소 A, 11개 문항. 정신질환자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

간호학논집, 제 3집별책, 1978.

27) 박예숙, "비정신과 간호원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조사연구" 대한 간호학회지, 1973, 제 3권, 제 2호, pp. 31~43.

28) R.Murry, "Attitudes of professional nonpsychiatric nurses toward mental illness," J. psychiat. nur., 1969, Vol. 7, pp. 117~123.

29) J. Middleton, "The prejudice and opinions of mental hospital employees regarding mental illness," Amer. J. psychiat., 1953, Vol. 110, pp. 133~138.

30) M.E. Perry, and others, "Differential attitudes of psychiatric and nonpsychiatric nursing personnel," J. psychiat. Nurs., 1963, Vol. 1. pp. 186~197.

31) Kahn, op. cit., p. 136.

32) 박예숙, 전제서, 1978, p. 5.

고 비인도주의적 감정으로 대하여 정신질환자들을 하위계급으로 보아 강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

2) 자비심 (Benevolence).....요소 B, 14개 문항. 과학적이라기 보다 오히려 종교와 인도주의에 입각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견해

3) 정신건강 관념 (Mental Health Ideology)....요소 C, 9개 문항. 현대 정신건강요원의 신념과 정신건강운동의 원리를 구체화한 긍정적 견해이다. 즉 정신질환도 다른 질환과 같은 일종의 질환이라는 견해.

4) 사회생활제한성 (Social Restrictiveness)....요소 D, 10개 문항. 정신질환자들은 사회에 특히, 가정에 위협을 주므로 입원중이나 퇴원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

5) 인간관계 원인 (Interpersonal Etiology)....요소 E, 7개 문항. 앞에서 언급한 네가지 견해에 비해 인지적인 요소로서 정신질환은 대인관계의 경험 특히, 어린시절에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어서 유래된다는 견해³⁵⁾

본 연구에서 문항배열은 응답자의 편견을 고려하여 다섯태도요소들을 골고루 섞은 원문항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이외에 응답자들의 인적사항 및 기타특성 등 14문항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자료처리는 OMI 51문항 각 반응에 대하여 Likert방식에 의한 6단계 평정척도법에 의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를 1점, "동의한다"를 2점, "확실히 않으나 동의한다"를 3점, "확실히 않으나 동의하지 않는다"를 4점, "동의하지 않는다"

를 5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를 6점으로 배정한 후 OMI채점공식³⁶⁾에 준하여 다섯가지태도요소별 점수를 계산하였다.

각 요인간의 태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섯가지 태도요소를 전산 처리하여 산술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검증과 Fisher's변량분석법에 의하여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수집된 자료를 각 가설별로 분석,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원의 태도는 정신과 근무 간호원이 타과 근무간호원보다 긍정적일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과 근무 간호원과 타과 근무 간호원간의 각 요소별 점수에 대한 통계학적인 검증 결과 유의한 차가 없었으므로 가설 1은 부정되었다.

가설 2.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태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일 것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연령군간의 요소별 점수에 대한 통계학적인 검증결과 정신건강관념의 요소에서만 유의한 차가 있었으나 연령증가에 따르는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가설 2는 부정되었다.

가설 3.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태도는 4년제 과정을 졸업한 집단이 3년제 과정을 졸업한 집단보다 긍정적일

<표 1> 정신과 및 타과근무 간호원의 OMI점수와 표준편차

	OMI factor Mn, S.D.	A		B		C		D		E	
		M	S.D.	M	S.D.	M	S.D.	M	S.D.	M	S.D.
근무부서	N=233										
정신과	122	29.61	6.39	45.05	5.29	26.31	3.87	27.11	6.14	21.05	5.06
타과	111	30.75	5.96	44.93	5.52	27.11	3.36	26.88	5.84	21.16	4.23
t-value		1.41		0.17		1.67		0.28		0.19	

33) 원정숙, 전계서, 1975, p. 11.

34) 안황란, "간호학교수의 정신질환에 대한 견해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78, p. 19.

35) J. Cohen and E.L. Struening, op. cit., 1962, p. 358.

36) E.L. struening, and J. Cohen: "Factorial invariance and others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five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factors," Educ. psychol. measmt., 1963, Vol. 23, No.2, p.294.

〈표 2〉 연령에 따르는 정신과 근무간호원의 OMI점수와 표준편차

age	OMI factor		A		B		C		D		E	
	Mn.	S.D.	M	S.D.	M	S.D.	M	S.D.	M	S.D.	M	S.D.
	N=122											
21~30	105		29.30	6.54	45.12	5.27	26.68	3.77	26.89	6.20	21.18	4.86
31~40	12		30.67	5.28	44.67	6.56	23.67	4.27	28.25	5.96	18.92	6.86
41~50	5		33.60	4.72	44.40	2.30	25.00	2.55	29.00	5.79	23.40	3.21
F-ratio			1.271		0.077		*3.719		0.509		1.660	
df=2 *p<.05												

〈표 3〉 교육과정에 따르는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OMI점수와 표준편차

교육과정	OMI factor		A		B		C		D		E	
	Mn.	S.D.	M	S.D.	M	S.D.	M	S.D.	M	S.D.	M	S.D.
	N=122											
3년제	91		30.77	6.46	44.63	5.37	25.87	3.78	28.54	6.12	21.21	5.26
4년제	31		26.19	4.82	44.29	4.92	27.61	3.89	22.90	3.91	20.58	4.46
t-value			**4.16		1.52		*2.20		***5.93		0.60	
			p<.01				*p<.05		*p<.001			

〈표 4〉 병원유형에 따르는 정신과 근무간호원의 OMI점수와 표준편차

병원유형	OMI factor		A		B		C		D		E	
	Mn.	S.D.	M	S.D.	M	S.D.	M	S.D.	M	S.D.	M	S.D.
	N=122											
사립종합	68		28.41	6.27	46.57	4.51	27.29	3.58	24.26	5.39	20.56	4.48
국, 공립	54		31.11	6.27	43.13	5.61	25.07	3.89	30.69	5.08	21.67	5.68
t-value			*2.36		**3.76		**3.27		***6.70		1.17	
			*p<.05		**p<.01				***p<.001			

것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년제 과정을 졸업한 간호원은 3년제를 졸업한 간호원보다 권위의식과 사회생활 제한성은 낮았고 정신건강 관념은 높아 매우 유의한 차가 있었으므로 4년제를 졸업한 간호원이 3년제를 졸업한 간호원보다 세요소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가설 3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가설 4.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태도는 사립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집단이 국·공립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집단보다 긍정적일 것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립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원은 국·공립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원보다 권위의식과 사회생활제한성은 낮았고 자비심과 정신건강관념에 대해서는 높았

으며 매우 유의한 차가 있었으므로 사립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원이 국·공립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원보다 인간관계 원인을 제외한 네요소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가설 4는 긍정되었다.

가설 5.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태도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긍정적일 것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기간이 1년이하인 간호원과 1년이상인 간호원간의 각 요소별 점수에 대한 통계학적인 검증결과 유의한 차가 없었으므로 가설 5.는 부정되었다.

가설 6.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태도는 정신과를 자의로 선택한 집단이 타의에 의한 집단보다 긍정적일 것이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과 근무를 자

〈표 5〉 근무기간에 따른 정신과 근무간호원의 OMI점수와 표준편차

근무기간	OMI factor		A		B		C		D		E	
	Mn.	S.D.	M	S.D.	M	S.D.	M	S.D.	M	S.D.	M	S.D.
	N=122											
1년 이하	33		29.09	5.29	45.76	43.3	26.33	2.97	26.76	6.48	20.52	4.63
1년 이상	89		29.80	6.77	44.79	5.61	26.30	4.17	27.24	6.04	21.25	5.22
t-value			0.54		0.90		0.04		0.38		0.71	

〈표 6〉 정신과 근무 선택의 자의 및 타의에 따른 간호원의 OMI점수와 표준편차

선택	OMI factor		A		B		C		D		E	
	Mn.	S.D.	M	S.D.	M	S.D.	M	S.D.	M	S.D.	M	S.D.
	N=122											
자의	86		29.78	6.43	45.07	4.80	26.48	3.76	26.87	6.19	21.12	4.95
타의	36		29.19	6.37	45.00	6.38	25.92	4.15	27.67	6.06	20.89	5.37
t-value			0.46		0.06		0.73		0.65		0.23	

〈표 7〉 업무의 만족도에 따른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OMI점수와 표준편차

만족도	OMI factor		A		B		C		D		E	
	Mn.	S.D.	M	S.D.	M	S.D.	M	S.D.	M	S.D.	M	S.D.
	N=122											
만족스럽다	46		30.00	5.68	46.37	5.01	26.61	3.51	25.93	6.61	21.46	4.02
보통이다	70		29.27	7.04	43.94	5.41	25.96	4.12	27.39	5.75	20.49	5.64
불만족스럽다	6		30.50	3.08	47.83	2.40	28.17	3.19	32.83	2.93	24.50	3.94
F-ratio			0.239		*3.978		1.120		*3.676		2.013	

* $df=2$ * $P<0.5$

의로 선택한 간호원과 타의에 의한 간호원 간의 각 요소별 평균치에 대한 통계학적인 검증결과 유의한 차가 없었으므로 가설 6은 부정되었다.

가설 7.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근무간호원의 태도는 간호업무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의 만족도에 따른 각 요소별 점수에 대한 통계학적인 검증결과 자비심과 사회생활 제한성의 두 요소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으나 사회생활제한성의 요소에서만 만족도가 높을수록 낮은 점수로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으므로 가설 7은 일부만 긍정되었다.

V. 논 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

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정신과 근무 간호원과 타과 근무 간호원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한 차는 없었다.

본 연구결과 정신건강관념, 사회생활 제한성, 인간관계원인의 세 요소에서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Kahn³⁷⁾의 연구에서 간호학생과 내·외과 간호원보다 정신과 간호원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지 정신과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정규적인 교육과 계속되는 실무교육 경험이 긍정적인 태도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며 좀더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표 8〉에서 미국의 간호원과 우리나라간호원간의 태도요소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자비심과 인간관계원인은 비슷한 점수로 나타났지만

37) Kahn, op. cit., pp. 136~140.

〈표 8〉 우리나라 간호원과 미국의 간호원과의 평균치 비교

OMI factor	A	B	C	D	E
본 연구(정신과 및 타과 근무간호원)	30.2	45.0	26.7	27.0	21.1
Cohen 및 struening의 연구(")	21.2	45.1	34.1	20.8	19.6

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의식과 사회생활제한성은 아주 높았고 한편 정신건강관념이 낮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만 하다.

이것은 우리나라 간호원이 미국의 간호원에 비해 부정적인 태도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주³⁸⁾와 원³⁹⁾의 한국 간호학생이 미국 간호학생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견해와도 일치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한국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과 정신질환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그릇된 신념으로 인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Distefano⁴⁰⁾는 간호원과 간호보조원에게 단기 정신건강교육을 통해 정신간호지식을 증가시키므로서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를 보고하였는데 이와같은 결과는 졸업후 계속적인 실무교육이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외국의 경우 정신과 근무 간호원을 정신과 전문직 간호원으로 자격인정을 해주어 졸업후에 계속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한 제도가 없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2) 간호원들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나 Stotsky와 Rhetts⁴¹⁾, Murry⁴²⁾ 그리고 박⁴³⁾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권위의식과 사회생활제한성이 높았다는 보고와 일치된 결과를 얻었다.

한편, 정신건강관념은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졸업후 정기적인 교육경험을 통해 현저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낼 수 있다⁴⁴⁾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높은 연령층의 간호원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일단 졸업을 하고 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는 4년제 과정을 졸업한 간호원이 3년제를 졸업한 간호원보다 권위의식, 정신건강관념, 사회생활제한성의 세 요소에서 매우 유의한 차를 나타냈다는 Cohen과 struening⁴⁵⁾이 지적한 교육은 권위의식, 정신건강관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손⁴⁶⁾은 4년제나 3년제 학교가 문교부의 동일지침에 의한 교과과정을 가진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두 집단간에 매우 유의한 차가 있게 나타난 것은 간호학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4)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는 현재 사립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원이 국·공립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원보다 권위의식, 자비심, 정신건강관념, 사회생활제한성의 네 요소에서 매우 유의한 차를 나타내었다. 이는 Stotsky와 Rhetts⁴⁷⁾의 연구에서 주로 국·공립정신병원에서 실습하였던 나이 많은 간호원이 권위의식과 사회생활제한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사립종합병원에서 실습한 간호원이 국·공립정신병원에서 실습한 간호원보다 권위의식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는 박⁴⁸⁾의 연구결과와

40) M.K. Distefano and W.P. Margaret, "Effect training on ment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es and nurse aides in a general hospital Nur Resear., 1975, Vol. 24, No. 1, pp. 40~42.

41) B.A. stotsky & J.E. Rhetts, "changing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in nursing homes," Nur. Resear., 1966, Vol. 15, pp. 175~177.

42) Murry, op. cit.,

43) 박예숙, 전계서, 1973, p. 38.

44) J. Cohen, & E.L. struening, op. cit., 1962, p. 358.

45) J. Cohen & E.L. struening, op. cit., 1962, p. 358.

46) 손옥순, "한국간호교육과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1972, 11권 1호

47) stotsky & Rhetts, op. cit., pp. 175~177.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근무하는 병원의 유형에 따라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매우 유의한 차를 보인 것은 국·공립정신병원은 대개 만성정신질환자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치료적 환경의 제반시설이 사립종합병원보다 빈약하여 간호원들의 의욕상실이 올 수도 있으며 높은 연령층의 간호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5) 간호원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는 정신과 근무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는 없었다.

이는 Reznikoff⁴⁹⁾나 Murry⁵⁰⁾의 정신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을 수록 태도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간호원이 1년 이하인 간호원보다 권위의식, 자비심, 정신건강관념, 사회생활제한성이 네 요소에서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 장기간에 걸친 정신과 경험은 태도 전반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Kahn⁵¹⁾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다.

이는 졸업후 거의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해 새로운 경험과 진보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며 지도자의 질적, 양적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6) 정신과 근무를 자의로 선택한 간호원과 타의에 의해 근무하게 된 간호원간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한 차는 없었다.

주⁵²⁾의 연구결과 정신과 간호학 임상실습에 흥미가 있어 미래에 정신과 간호원이 되겠다는 학생이 권위의식에서 낮은 반응을 보인 것과는 일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가 없었던 것은 대상자수가 적어 그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어려웠던 것으로 사료된다.

7)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

환자에 대한 태도는 업무의 만족도에 따라 사회생활 제한성의 요소에서만 유의한 차가 있었다. 그러나 안⁵³⁾은 교수과목에 만족하고 있는 교수가 만족하지 못하는 교수보다 권위의식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수가 적었고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4.9%의 구성비율에 불과하므로 이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를 조사, 연구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연구결과에 의한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보는데 있다.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시내 소재 12개의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간호원 122명, 타과 근무간호원 111명에게 Cohen과 struening이 개발한 51문항으로 구성된 OMI척도를 사용하여 1979년 10월 16일부터 26일에 걸쳐 태도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산처리하여 t-test와 F-test를 이용해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태도는 타과 근무간호원의 태도와 유의한 차는 없었으나 정신건강관념, 사회생활제한성, 인간관계원인의 요소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다.

2)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근무간호원의 태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는 없었다.

48) 박예숙, 전제서, 1973, p. 39.

49) M. Reznikoff & others, "Attitudes toward the psychiatric milieu: An interhospital comparison of nursing personnel attitudes," Nur. Resear., 1964, Vol. 13, pp. 71~72.

50) Murry, op. cit., pp. 132~138.

51) Kahn, op. cit., pp. 136~140.

52) 주명순, 전제서 p. 28.

53) 안황란, 전제서, p. 34.

3)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태도는 교육과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4년제 과정을 졸업한 간호원이 3년제 과정을 졸업한 간호원보다 권위의식, 정신건강관념, 사회생활제한성의 세요소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4)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근무간호원의 태도는 근무하는 병원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사립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원보다 국·공립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원보다 인간관계원인을 제외한 다른 네요소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5)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태도는 근무기간과 정신과 근무 선택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는 없었다.

6)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태도는 정신과 간호업무의 만족도에 따라 사회생활제한성의 요소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제 언

본 연구의 결론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대상자 선정이 서울에 한정되었으므로 지역적 배경 및 기타특성이 다른 간호원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2) 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졸업한 간호원들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전과 후의 태도변화를 비교하여 본다.

참고문헌

박예숙, 비정신과 간호원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제 3권, 제 2호, pp. 31~43. 1973.
 “정신과 간호학 강의 및 실습이 간호학생들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 논집, 제 3집 별책, 1978.
 손옥순, “한국간호교육과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제 11권, 1호, 1972.

안황란, “간호학 교수의 정신질환에 대한 견해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원정숙, “정신과 간호학 임상교육을 통한 간호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변화연구” 경희간호논집, 제 1권, 제 1호, pp. 9~22. 1972.
 주명순, “정신질환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연구” 간호학회지, 제 4권, 제 3호, pp. 13~31. 1974.
 Altrocchei, J. and Carl, E., “Changes and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Mental Hygiene*, Vol. 45, pp. 563~570, 1961.
 Kahn, A.M., “Relationship between nurses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and experience,” *Nur. Res.*, Vol. 25, No. 2, pp. 136~140, 1976.
 Canter, F.M. and Shoemaker,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 attitudes and attitude toward mental health patients,” *Nur. Res.*, Vol. 20, No. 6, pp. 522~529, 1971.
 Cohen, J. and Struening, E.L.,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in the personnel of two large hospitals,” *J. Abnorm. Soc. Psychol.*, Vol. 64, pp. 349~360, 1962.
 Cohen, J. and Struening, E.L.,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mental hospital occupational profile clusters,” *psychol. Rep.*, Vol. 12, pp. 11~24, 1963.
 Cohen, J. and Struening, E.L.,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Hospital social atmosphere profile and their relevance to effectiveness,” *J. Consult. Psychol.*, Vol. 28, pp. 291~298, 1964.
 Struening, E.L. and Cohen, J., “Factorial invariance and others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five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factors,” *Educ. & Psychol. Measmt.* Vol. 23, pp. 294, 1963.
 Creech, S.K., “Changes in attitudes about mental illness among nursing students following a psychiatric affiliation,” *Nur. Res.*, Vol. 15, No. 6, pp. 9~14, 1977.
 Gelfand, S. and Ullman, L.P. “Attitudes changes associated with psychiatric affiliation,” *Nur. Res.*, Vol. 10, No. 4, Fall, pp. 200~204, 1961.
 Hick, J.M. and Spaner, F.E., “Attitude change and social psychol., Vol. 65, No. 2, pp. 112~120, 1962.
 Lewis, L. and Cleveland, S.E., “Nursing Students’ attitudinal change following a psychiatric affiliation,” *J. Psychiatr. nurs.*, May-June, Vol. 4,

- pp. 223~231, 1966.
- Meyer, L.M.,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 mental patients of junio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and their university peers," *Nur. Res.*, May-June, Vol. 22, No. 3, pp. 242~245, 1973.
- Middleton, J., "The prejudice and opinions of mental hospital employees regarding mental illness," *Amer. J. Psychiat.*, Vol. 110, pp. 133~138, 1953.
- Morris, K.D., "Behavior change: A concomitant of attitude change in nursing students," *Nur. Res.*, Spring, Vol. 13, No. 2, pp. 132~138, 1964.
- Distefano, M.K. and Margaret, W.P., "Effect of brief training on ment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es and nurses' aids in a general hospital," *Nur. Res.*, Vol. 24, No. 1, pp. 40~42, 1975.
- Murry, R., "Attitudes of professional nonpsychiatric nurses toward mental illness," *J. Psychiat. Nurs.*, Vol. 13, pp. 117~123, 1964.
- Perry, M.E. and others, "Differential attitudes of psychiatric and nonpsychiatric nursing personnel," *J. Psychiat. Nurs.*, May, Vol. 1, pp. 186~197, 1963.
- Reznikoff, M. & Others, "Attitudes toward the psychiatric milieu: An interhospital comparison of nursing personnel attitudes," *Nur. Res.*, Vol. 13, pp. 71~72, 1964.
- Scott, W.A., "Attitude change through the reward of verbal behavior," *J. Abnorm. psychol.*, July, Vol. 55, pp. 72~75, 1957.
- Smith, J.J., "Psychiatric hospital experience and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J. consu. clin. psychol.*, Vol. 33, No. 3, pp. 302~306, 1969.
- Stotsky, B.A. & Rhetts, J.E., "Changing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in nursing homes," *Nur. Res.*, Vol. 15, pp. 175~117, 1966.
- Swain, H.L.,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Nur. Res.*, Vol. 22, No. 1, pp. 59~64, 1973.
- Walsh, J.E., "Instruction in psychiatric nursing, level of anxiety, and direction of attitude change toward the mentally ill," *Nur. Res.*, Vol. 20, No. 6, pp. 522~528, 1971.
- Toomey, L.C. and others,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psychiatric treatment and hospitals," *Mental Hygiene*, Vol. 45, pp. 589~602, 1961.

—Abstract—

A Study of the Attitudes of Psychiatric Registered Nurses towards Mental Illness and Mental Patients

Hyang-Mee Kim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and the mentally ill of psychiatric nurses in Korea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urses' attitudes and demographic variables.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22 psychiatric nurses and 111 non-psychiatric nurses in active service at 12 hospitals in Seoul. The instrument used for measuring attitudes was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Cohen and Struening (1962) referred to as the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OMI) Scale" made up to 51 Likert-type item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nurses showed negative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and the mentally ill: Very high on social restrictiveness (factor D), low on Mental Health Ideology (factor C), and Interpersonal Etiology (factor E).

Since the high score on Factor A, B and the low score on Factor B, C, E reflect a negative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this study population related extremely negative attitudes compared to any other surveys.

And of the demographic variables that related to their attitudes the education degree and the kind of the hospital in active service showed very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basis of the investigation the findings indicated the followings;

- 1) Although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and the mentally ill of psychiatric nurses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non-psychiatric nurses, there was a trend that attitudes of psychiatric nurses did show more negative responses rather than those of non-psychiatric nurses.
- 2) Demographic variables that relate to their attitudes on the OMI scale were the education degree of the respondent and the kind of their hospital in active service.
- 3) About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and the mentally ill baccalaureate nurses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s in Factor A (Authoritarianism), Factor C (Mental Health Ideology) and Factor D (Social Restrictiveness) than diploma program nurses.
- 4) Nurses in active service in the private hospital revealed more positive attitudes (A, B, C, D) except Factor (E) than those in the national or public hospital.
- 5) The ages, duration of work, wanted or unwanted group of psychiatric ward and satisfactory level of psychiatric nursing service were non-significant.